주체 1 1 0 (2021)년 7월

토요일

음력 6월 1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 떠 세 우 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위대한 전승 의 날로부터 예순여덟돌기의 년륜이 새겨지고있다.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승 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온 나라가 환희와 격정으로 세 차게 들끓던 그날은 멀리 흘러갔어도 오늘도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그때의 만세소 리가 끝없는 메아리가 되여

내이고 세기를 넘어서도 공화 국을 새로운 상상봉으로 힘 있게 떠밀어주는 7.27의 승리 전통을 공화국인민들은 사랑 하며 세월과 더불어 끝없이 전해가고있다.

위대한 전승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것을 자랑스럽게 추억한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의 마 유속에 간직된 전승에 대한 추억은 단순히 승리에 대한

희열만이 아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 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세 찬 분출이며 공화국의 영원 한 승리를 담보하는 긍지높 은 전통과 재부가 마련된데 대한 값높은 자랑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 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 전술, 비범한 령도와 수령 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군대 와 인민의 숭고한 애국주의 와 대중적영웅주의가 안아온 기적적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한 인 민대중의 힘을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보시고 침 략자들과의 판가리결전에로 공화국군대와 인민을 힘있 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세계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독창 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며 적들의 수적, 기 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 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도록 하시였다.

싸우는 전선의 병사들과 후방의 인민들을 찾고찾으시 지혜를 안겨주시고 천리혜안 의 선견지명과 담대한 배짱. 강의한 의지와 령활한 작전지 휘로 적들의 모험적인 공 세를 산산이 짓부셔버리신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 는 전화의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정 신력의 근본원천으로, 무한 한 애국주의의 줄기찬 원동 력으로 되였다.

간고하였던 조국해방전쟁 의 1 129일, 준엄하였던 2만 7 000여시간.

이 나날 인민군병사들과 인민들은 천만대적이 밀려들 고 전쟁형세가 극도로 불리 할 때에도 수령님께서 계시 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안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사령부를 목숨바쳐 옹위

울리고있다.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로 빛

누구나 승리를 바라며 그 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 고귀한 전통 을 바쳐 적화점을 몸으로 막아 돌격로를 열었으며 《후방도 전선이다!》는 전 투적구호밑에 싸우는 고지

들에 식량과 탄약을 지원하

며 침략자들에게 패배의 쓴

맛을 안기고 전승의 신화를 안아왔다. 전화의 나날 군대와 인민 의 가슴마다에 청석마냥 굳 게 자리잡은 수령에 대한 절 대적인 믿음과 충성은 그 어 떤 책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형성된것이 아니다.

날아가던 새들도 얼구어 돌덩이처럼 떨구는 강추위, 뼈속까지 에이는 칼바람속 에서 극심한 식량난과 무서 운 병마를 이겨내며 목숨으 한치한치 열어나간 항일 로 혈전만리가 새겨준 피의 진리였으며 나라를 찾아주신 절세의 애국자께서 주신 땅 과 로동자가 주인된 일터에 서 참된 삶을 누린 공화국인 민이 실천으로 깨달은 억척 의 신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불타는 믿음을 지니고 조국의 한치 땅을 피로써 지킨 인민군전 사들과 전쟁승리에 모든것을 다 바친 후방의 인민들에 의 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 던 사령부결사용위정신, 수령 중심의 단결의 정신, 억천만 승리의 7.27은 우리 민족사 절불굴의 투쟁정신, 맨손으로 한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투 연길폭탄을 만들어내던 자 대사변의 날로 길이 빛을 뿌 력갱생의 그 정신이 싸우는

무비의 영웅 성과 희생성, 견인불발성은 공화국인민의 특유의 기질 로, 투쟁본때 로 공고화되였 으며 사회주의 조선의 승리

를 추동하는

로 높이 펼쳐

지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

으로 자리잡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 피와 생명을 바 쳐 조선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력사를 창조하 고 백두의 혁명 정신을 전인민

적인 사상정신 으로 승화시킨 공화국의 전승 세대는 혁명전 통계승의 초석 을 마련한 자랑 스러운 세대이 라고 높이 내세 워주시였다. 전후 공화국

의 사회주의혁 명과 건설의 위대한 새 력 사를 방향짓게 하고 공화국과 인민이 영원히 승리해나갈수 있는 긍지높은 창조하였으며

세계의 정치구 도를 변화시키고 자주와 사 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시대 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한 리고있다.

전통은 대를 이어

전후 나라의 형편은 너무 도 어려웠다. 자금도 부족하 였고 안팎의 정세도 복잡하 였다.

무엇으로 페허를 가실것인 가. 무슨 힘으로 공장과 거 리를 일떠세울것인가.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들은 새 전쟁도발에 광분하 였고 음모가, 야심가들은 수령에 대한 인민의 흠모를 든장질하였으며 대국주의자 들의 간섭 또한 로골적이

피로써 전쟁승리를 안아 하였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 온 공화국인민은 재더미우

에서 맨손으로 복구건설을 시작하여야 하였다.

하지만 가증되는 위협도 압력도, 모진 고난과 고충도 새 생활을 창조하고 부강조 국을 일떠세우려는 공화국인 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되 고 축적된 정신력과 고귀한 전통으로 어떤 난관도 이겨 내고 남들이 보란듯이 나라 를 우뚝 일떠세우겠다는것이 이 나라 인민의 신심이고 배 짱이였다.

그 신심과 배짱, 희망과 락

관으로 충만된 공화국의 전 승세대들은 전화의 포연속에 서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 며 아름다운 미래의 설계도 의 현명한 령도따라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며 력사가 일찌 기 알지 못하는 눈부신 전진 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정전후 불과 한주일만에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나라의 주요간선들에서 철도수송을 시작하였고 원쑤들의 맹폭격 에 의해 재가루만 날리던 폐 허우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은 불과 40일만에 자체의 힘으 로 전기로를 복구하여 첫 쇠 물을 뽑았다.

1955년에 벌써 나라의 주 요공업부문 생산량은 전쟁전 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수 도 평양이 응장하게 일떠서 고 함흥, 청진 등 여러 도시 가 빠른 속도로 복구되였다. 사랑하는 조국땅우에 천리 마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 고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

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고 19만t도 하기 어렵다던 외아 들용광로에서 27만t의 선철 을 생산하는 기적도 창조되 들은 세계를 놀래우며 보통 의 상식으로는 3~4년이 걸 러야 한다던 수백리 철길공 사를 불과 75일동안에 해제 껴 세인을 놀래웠다.

relate Estat

1950-1953

침략자를 쳐부신 승리자의 기상안고 자력갱생의 기치높 이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백걸음을 내달리는 거 창한 천리마진군속에 뜨락또 르와 자동차, 불도젤과 대형 양수기가 태여났다.

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과 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남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 몇 세기를 거쳐 한 공업화의 력 사적과업을 불과 14년동안에 수행한 기적이야말로 기존의 개념이나 경제수학적인 계산 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도 가늠할수도 없는 격동적사변 이였다.

천리마의 기상 으로 사회주 의건설의 터전 을 다진 전승 정신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의 령도에 의 하여 세대와 세기를 이어 뿌리게 빛을 되였다. 위 대 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

수령님의 령도

밑에 조국해

리를 안아왔

으며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고

방전쟁의

기간 온 나라 에 1950년대 조국결사 수호정신이 차 넘치도록 하시 였 으 며 들이 눈앞의 《번영》만 추 구하며 사회 주의신념과 신 조를 버릴 때 전승의 정신 과 의지로 인 민을 불러일으 키시여 공화국 을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 로 전변시키시

였다. 지난 세기의 준엄한 년대들 에 《푸에블 로》 호사건과 《EC-121》 사 건과 같은 반 제대결전들에

서 공화국이 런전련승을 이 룩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엄혹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 기 탁월한 선군령도로 민족 지켜주시며 승리의 력사를 더 욱 빛내주신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길이 빛날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승리의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 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장기적 인 반제대결전을 기어이 주 체조선의 최후승리로 결속짓 고 자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이 경애하는 그이의 확고 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령도력과 담대한 배짱, 사생결단의 애국헌신 에 의하여 공화국은 명실공 히 세계적인 정치군사대국으 로 부상하였으며 대국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 는 영원히 끝장나게 되였다. 참으로 공화국인민들과 후 대들이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것이야말 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아오신 가장 뜻깊고 긍지높

공화국인민들은 전승의 전 통과 정신력으로 새로운 시 대정신들을 창조하고 세기적 사변들을 이룩하며 승리만을 <u> </u> 떨쳐온 지나온 70여년을 영원 히 잊지 않을것이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위대한 사상과 함께 고귀 한 투쟁정신과 전통은 혁명 하는 나라와 인민에게 있어 서 무엇보다 귀중하다.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 러도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 였으며 빈터우에서 천리마의 나래를 활짝 펼치게 한 위대 한 정신력과 불굴의 투쟁전 통은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오늘 공화국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중첩 되여있다. 온 지구를 공포 에 빠뜨리고있는 세계적인 방역위기, 련이어 들이닥치 는 파괴적인 자연재해들,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제국 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 책동…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조 금도 비관하지 않고 배심든 든히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공화국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의 앞길 을 향도하시고 준엄한 년대 들을 승리로 빛내준 자랑스 러운 전통과 위대한 투쟁정신 이 있어 인민은 용기백배, 기 세충천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제6차 전국로병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로동당 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조 국수호자들의 정신으로 살 며 투쟁하자!》는 구호를 높 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구마다에서 자랑찬 승전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 긴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고 조국의 한치땅을 피로써 지 킨 전화의 용사들처럼, 우 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한다며 무한히 충실했던 전후의 천리마세대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한 려정에 장엄히 올라 섰다.

는 올해초에 진행된 조선 로동당 제8차대회를 비롯 한 중요회의들에서 공화국 이 나아갈 전진방향과 투 쟁목표를 뚜렷이 명시해 주시였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전승 세대의 전통과 정신으로 만

장약하고 령도자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의 새 승리 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비벆득출한 예지와 통찰력 불철주야의 사색과 헌신으로 조선의 사회주의의 전진발전 을 줄기차게 인도하는 불멸 의 지침과 위력한 실천적무기 를 마련해주시고 온 나라 인 민들이 무한한 신심과 용기 에 넘쳐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 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지나온 주체100년대의 10년간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여 공 화국은 필승의 신심높이 양 양한 미래로 나아간다는 철 석의 신념이 인민의 심장속 에 깊이 뿌리내린 나날들이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굳게 믿고 순결한 마음으로 따르고 받들어 올해의 전 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며 국가의 장래발전과 인민생 활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 한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하 자는것이 천만의 억척의 신 념이다.

일단 결심하시면 반드시 자랑찬 현실로 전변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따라 인민은 기세충천하 여 떨쳐나섰고 공화국의 곳 곳마다에서, 인민경제의 모 든 부문들에서 새로운 기적 과 혁신들이 런이어 일어나 고있다.

새로운 평양속도, 시대정신 세대 살림집건설장과 현대적 인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장, 검덕의 5 000세대 살림집건설장의 눈부신 전변 은 또 얼마나 광휘로운 미래 와 인민의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전승세대의 피와 넋을 이 어받은 이 땅의 후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 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조 국해방전쟁에서 높이 발휘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 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전통. 투쟁기풍으로 《세상에 부럼 없어라》의 노래 더 높이 울 릴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전승의 전통은 주체조선의 력사에서 승리의 전통으로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마음속진정을 노래한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표창을 수여받은 중요예술단체 창작 가, 예술인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다.

노래 《우리의 국기》를 비 롯하여 인민이 사랑하고 즐 겨 부르는 시대의 명곡들을 이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그이 의 값높은 평가와 사랑속에 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음 악예술로 새로운 전진의 시 대, 력동의 시대를 추동해나 가시려는 숭고한 의도와 뜻 이 닦겨져있다.

한 휴식참에도, 또 깊은 밤 이나 이른아침 불밝은 집집

노래 《우리 어머니》와 《그 정을 따르네》, 《어머 니를 사랑합니다》, 《어머 니》 …

온 나라 인민들이 꼭 하고 싶었던 말, 심중에 고패치던 고마움의 진정이 다 담겨진 노래들이기에 누구나 그 어 디서나 즐겨 부른다.

진정 오늘의 참된 삶만이 아닌 래일의 휘황한 미래도 다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품 밖에 없기에 그 사랑을 날 날마다 페부로 절감하며 사는 이 나라의 모든 자식 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노래 《우리 어머니》는 부 를수록 가슴이 뜨겁게 젖어 든다.

니처럼 근심많은 어머니 어 데 있던가〉, 이 구절을 뗴 고는 뒤구절을 이을수 없었 습니다. 저는 한가정의 어 머니구실도 하기 이 나라 모든 가정을 보살 피는 어머니가 되시여 새 벽길도 숫눈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로고가 사무쳐와 이 메여옵니다.》

이것은 은파군 대청리 의 한 녀인만의 심정이

큰물로 집과 가산을 잃었건 만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로고속에 본래 살던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 감격에 흐느끼던 피 해지역 사람들모두가 터치는 마음속고백인것이다. 아니 그 품에 생을 둔 이 나라 천만자 식들이 한목소리로 웨치는 고 마움의 토로이다.

그이의 하루하루는 동트는 새벽문을 먼저 열고 숫눈길 도 앞서 걷는 로고의 낮과

밤들에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행복의 요람에 잠 재우시고 새로 만든 지하전 동차, 무궤도전차의 시운전 을 지도해주시며 미흡한 점이 하나라도 있을세라 보살펴주 시였고 그런 새벽들에 온 나 라 자식들의 생활의 구석 구석을 헤아리시며 좋아라 웃고 떠드는 사람들과 아이 들의 모습에서 쌓이신 피로 를 잊으시였다.

하기에 인민들은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속에 추운줄 몰랐고 외진 곳에 있어도 두

이런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는 살수 없기에 인민은 노래 하는것이다.

제일 좋은 어머니 더는 없으리 열백번 이 땅에 다시 태여

난다 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

싶어라

참으로 천만자식들을 돌보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 과 헌신, 그 어떤 모진 시련이 중첩된다고 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일편단심 믿고 따를 인민들의 불같은 의지가 구절구절마다에 맥박 치는 명곡이다.

위대한 시대는 수많은 명 곡을 낳기마련이다.

그 손길 한번 강토에 비끼 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거인의 그 손 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속 의 천리마 네굽을 안고 나 는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이 이 나라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었기 에 인민은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를 모신 긍지와 자부 심을 소리높이 구가하며 찬 란한 그 령도따라 휘황한 미 래에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따뜻한 봄빛이 한창 무르 녹던 주체80(1991)년 어느날이였다

는 환하신 안색으로 민족자 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 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다가 이런 교시를

하시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는 지난 기간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조

뒤로 밀어놓으 시고 몸소 그들을 뜨겁게 맞

그 교시 한마디한마디는

몸에 지니시고 불바다 만리, 눈보라 만리 그 머나먼 길을 한평생 쉬임없이 걸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국을 방문하면 모든 사업을 다 올랐다.

이하여주시고 그들이 지침으 로 삼고나갈 교시도 하시고 친히 연회, 오찬까지 베풀어 주군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0고령이 다되신 수령님께서 조국을 방문하는 총련일군들과 재 일동포들과의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하실수야 없지 않습 니까.》

일군들의 가슴을 쳤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수령님께서 년로하신 몸으

로 온 나라의 크고작은 모

하지만 가까이 있는 자식

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어버이의 그 끝 모를 념려와 사랑을 과연 누 가 대신할수 있으며 하해같 은 그 품에 한번만이라도 안 기고싶어하는 자식들의 열망 을 그 무엇으로 막을수 있 단 말인가.

바쁘신 속에서도 총련일군들

과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왔

다면 제일로 기뻐하시며 한

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친어버이사랑과 은정을 아

인덕에 감동되고 목메일줄

이나 알았지 수령님의 크나

큰 로고에 대하여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자신들이

돌이켜져 얼굴이 뜨거워

일군들은 안타까운 가슴만 부여잡을뿐이였다.

이때 방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저력있게 울리였다.

《그 공간을 이제는 내가 메 꾸자고 합니다. 총련일군들이 앞으로 조국

을 방문하면 내가 그들을

든 일을 다 돌보시는 그 만나주겠습니다.》 일군들은 일시에 막혔던

숨을 내쉬였다. 그리고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에 겨워 장군님을 우러렀다.

불세출의 위인이 하던 일은 반드시 그와 꼭같은 천출위인만이 대신할수 있는

것이다. 어버이수령님과 꼭같으신분

이시라고 만민 이 칭송하며 경 모 하 는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건강 과 안녕을

지켜드리고 수령님의 뜻을 그 대로 이어나가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였기 에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 몸에 걸머지신 자신의 어깨에 총련과 재일동포사업이라는 무거운 짐을 또다시 덧놓으시 는것이였다

일군들이 환희와 자책의 엇갈림속에 휩싸여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부의 장을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 를 만나 밥이라도 한끼 대접 해보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 다고 저으기 아쉬워하시는것 이였다.

순간 일군들은 가슴뜨거워 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본사기자

タポ T

이 선물식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주체79(1990)년 11월 뽈스까 볼레스뜨라씨쩨수 목원 원장 박사 예즤 삐우레쯔 끼가 삼가 올린것이다.

삐우레쯔끼는 이름있는 식물학 자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속에서 조선 의 중앙식물원이 과학지식보급기 지로 훌륭히 꾸러진데 대하여 부 러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에 남 다른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인민들이 언제나 행복하고 문 화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성의를 표시하고싶었던 그는 수목원의 주목들가운데서 모양이 제일 곱고 수세가 좋은 것으로 골라 특별히 관찰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자래웠다.

삐우레쯔끼는 조선의 한 대표 단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지 성이 담긴 노란유럽주목과 선

유럽주목이 조선에 널리 퍼져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기쁨을 드 릴수 있다면 최대의 영광으로, 행복으로 간주하겠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본사기자



《무엇이 불 가능하다면 그 아니다.》 이것은 공화국

ol

口

0

0

51

Πŀ

0

IH

月

2

从

수 있는 말이다. 말속에는 불가능을 모르 고 기적과 전변 만을 안아오는 공화국인민들의 백절불굴의 투 쟁정신과 의지, 자기의 힘에 대 한 굳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

불가능은 될 수 없거나 할수 없는것을 뜻하 기적들이 창조되였는가. 는 표현이다.

사전에는 이 런 단어가 있을 지언정 공화국 의 흘러온 70여 년 력사에는 불 가능이라는것을 찾아볼수 없다. 세인이 할수 없

다고 했던것도 조선은 보란듯 이 다 해냈고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 능으로 만들어 왔다.

70여년전 침 략적인 외세에 전쟁의 불길이 상사람들은 미 국과 맞서싸우 게 될 신생조 선의 운명을 두 고 우려의 시선 을 보내고있었 다. 그도 그럴 것이 공화국은 창건된지 이제 불과 2년도 채 안된 청소한 나 라였다. 정규무

력인 조선인민

군도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였다. 반면에 상대는 군사력이 나 경제력에 있어서 비할바 강행군시기는 가장 어렵던

없이 우세한 제국주의련합세

보병총의 대결이라고 일컫는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이긴것 은 조선이였다. 전쟁이 개시 되여 몇시간도 안되여 결정 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가 3일 만에는 서울을 해방하였으며 프로펠라비행기로 현대적인 분사식비행기를 쏴멸구고 어 뢰정으로 적중순양함을 격침 시키는 등 세계전쟁사가 알 지 못하는 기적들을 련속 창 조하고 승리의 7.27을 안아 온 조선을 두고 진보적인류 는 《영웅의 나라》라고 격

찬하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 시대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모든것이 파괴되여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던 조선 을 두고 당시 적대세력들은 백년이 가도 일떠설수 없다 고 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 내여 전쟁전수준을 회복하데 이어 전진과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다.

6만t의 공칭능력을 가진 압 연기에서 12만t의 강재가 생 산되고 19만t도 어렵다던 용 광로에서 27만t의 선철이 쏟 아졌다. 30여일만에 첫 《천 리마》 호뜨락또르가 태여나고 《승리》 호자동차와 굴착기, 불도젤들이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를 불사르며 대지를 의해 조선에서 내달리였다. 17~18살밖에 안 되는 녀성들로 조직된 고기 타올랐을 때 세 배 《녀성》 호가 바다로 나가 고 75hp, 100hp어선이 첫 원 해개척의 길을 연것도, 건설 부문에서 7천세대분으로 단 한해사이에 2만여세대의 살 림집을 건설하는 기적이 창

> 조된것도 이 시기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실생활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남들이 한걸음을 내 짚을 때 열걸음백걸음으로 내 달리는 공화국을 가리켜 세 상사람들은 《기적의 나라》 로 부르며 경탄을 금치 못

하였다 공화국에서 고난의 행군,

당시 적대세력들은 《조선 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 들면서 그 무슨 《3, 3, 3붕 괴설》까지 내돌렸다.

하지만 조선의 사회주의는 무너진것이 아니라 더욱 굳세 여졌다. 나라의 종합적인 국 력을 과시하며 인공지구위성 이 우주로 날아올랐다. 전 국의 토지가 사회주의땅답게 전변되고 도처에 기념비적창 조물들이 일떠서 강국건설의 대통로가 열리는 조선의 모 온것이다. 습은 경이적인것이였다.

최근 10년어간에도 공화국 에서는 세월을 주름잡으며 창조와 저변의 위대한 력사 가 수놓아져왔다.

조선에서 새로운 병진로선 이 천명되였을 때 공화국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적 대세력들은 《두가지를 동시 에 성공시킬수 없다.》, 《실 현불가능한 로선》이라고 시 비중상하였었다. 그러나 그 때로부터 불과 4년, 공화국 은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와 성을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선포하였다. 그러면서도 거의 해마다 옹근 하나의 새 거리들이 일 떠서고 이르는 곳마다에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우후 죽순처럼 솟아나는 조선의 현실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천지 개벽하는 조선의 발전속도야 말로 신화적인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라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혹독한 시련과 난관이 겹 쳐들었던 지난 한해에도 온 나라가 펼쳐나서 화를 복으 로 전환시키며 인민의 행복 을 더욱 꽃피워온 공화국에 서는 뜻깊은 이해에도 인민 들에게 줄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힘차게 벌어지 는 등 도처에서 놀라운 기 적과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

참으로 공화국이 걸어온 70여년의 력사는 최악의 역 경속에서도 더 높이, 더 빨 리 전진해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였다.

고있다.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와 령도자의 두리에 한 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 아가는 전민의 드높은 애국 적열의, 백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워 기어이 승 리를 안아오고야마는 백절물 굴의 투쟁정신과 의지, 자기 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이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창조되여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력사 적인 당 제8차대회와 당전원 회의들에서 제시된 국가발전 의 높은 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해 기세충천, 용기백배하 여 전진 또 전진하고있다.

승리는 제힘을 굳게 믿고 탁월한 애국의 령도를 받들 어 기세차게 전진하는 공화 국에 있다.

김 광 억

불과 불이 오가고 참혹한 인적, 물적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여러가 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된다. 하다면 지난 1950년대에 공 화국인민들이 가렬처절한 조 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전승 신화를 창조하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게 된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령도와 인민군군인 들과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 이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긴 전쟁. 어느 한 전쟁로병이 쓴 수 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의 위대한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주체전법이 안아온 승리인 동시에 전사들과 인 민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 과 크나큰 믿음이 낳은 승 리이다.》

내 각 결

평시도 아닌 준엄한 전화 의 시기에 전반적무상치료제 이 채택되고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받을수 있게 되였 을 때 온 나라 인민은 감격 에 목메였었다.

그 때 위 대 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런 뜻 깊은 내용의 교시를 하시 였다.

물론 오늘 우리의 형편은 좀 곤난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들의 생명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상치료 위훈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 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민들 였다.

에 류례없는 령도자의 사랑 과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한 전쟁이였다.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무 기도 대신할수 없는 위대한 정신력을 분출시킨 싸우는 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 천이였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한 군인의 가족을 구출하기 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국북반부로 의거해온 한 대 위하여 베풀어주신 위대한 명령을 전달받고 한 일군은 대장의 가족을 찾아 상봉을

설들도 파괴된 속에서 국가

안아오실수 있은것이다. 어찌 무상치료제뿐이랴.

화국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이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적 도록 한 힘의 원천으로 되

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 에 자금도 부족하고 의료시 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 료제실시라는 거대한 사변을

나날에

전화의 나날에 채택된 인 민사랑의 내각결정들은 공

는 그의 가족을 구출해올데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한사람이 열, 백

을 대신하여 판가리결전을 벌

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준엄한

시기에 한 전사의 가족을 위

해 1개 런대를 적후에 파견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설계된 포연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조 는 이 재더미를 밀어제끼고

선이 불속에서 솟아오른다.》 양은 전설에 있는 금새처 럼 페허속에서 부활하고있

취해주신

다.》 … 건설총계획도가 공개되자 세 계가 터친 경탄이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다 알수 없었다. 과연 어떻게 포연속에서 승리의 래일이 설계될수 있었는지.

주체40(1951)년 1월 어느 날 이른새벽, 폭격으로 파 괴된 평양시를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기울이신 수많은 사랑

의 이야기들중에서 작은 일부

이 념려되시여 깊은 밤 전

화를 걸어 전투원들에게 더

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이

고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주

라고 당부하신 이야기, 공화

분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평양, 가장 문명하 일떠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전쟁승리를 굳게 확신 이것은 조선에서 전후복구 하시고 때로는 최고사령부 에서 설계일군들에게 복구건 설방향도 밝혀주시고 때로는 작전도에 승리의 화살표를 그으시던 색연필로 설계도면 에 표식을 하시며 가르쳐주 기도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전후복구건설의 응대한 설 계도는 이렇게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 마련되였다.

본사기자

추위속에서 고생할 서울시민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것을 잘 알수 있다.

주체40(1951)년 11월 어느 날 한달동안에 적기를 5대 나 쏴뗠군 나어린 영웅전사 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단하다 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그의 이름과 나이, 고향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전사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리고 형제들이 개성에서 멀지 작전을 펴게 되였다. 않은 적구에서 살고있다는 사 조국해방전쟁은 세계전쟁사 실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쟁시기 병사들과 인민들을 스란히 돌려주신 이야기며

그러는 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홀려 싸우는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지체하 지 말고 어서 런대를 적후 에 있는 전사의 고향으로 보 내자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하여 1개 련대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한 전 사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이 이야기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을 사양하시고 닭알까지 고

마련해주신 사연 등 가슴뜨 거운 사랑과 믿음의 일화들 이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 고있다.

싸우는 병사들의 건강이 념려되시여 세계전쟁사에 없 는 화선휴양소도 내오도록 의 녀인들… 하시고 전사들의 식생활을 걱정하시며 손수 산나물표본 집도 만들어보내주신 그

들을 생각하시여 겨울철땔나 무까지 마련하여 강에 띄워 1211고지 용사들의 건강 보내주신 이야기 등 전화의 나날에 꽃퍼난 감동깊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 전하 자면 끝이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육친적사랑은 전쟁에 펼쳐나선 인민군용사들과 인 민들이 무적의 힘을 낳게 하 고 용맹을 떨치게 하였다.

불뿜는 적의 화구를 한몸 으로 막은 영웅전사들, 수 류탄묶음을 안고 적진을 향 해, 적땅크를 향해 맞받아나 간 육탄용사들, 더 많은 총 탄과 포탄을 싸우는 고지마 다에 보내주기 위하여 결사 전에 펼쳐나섰던 군수공업부 문의 로동계급과 전시식량증 산투쟁을 힘있게 벌린 후방

전화의 나날에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이 발휘 한 이 모든 영웅적위훈은 사랑, 고산진의 수수한 농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에 드시여 집주인이 올린 닭 그나큰 사랑과 믿음의 힘이 낳은것이였다.

김 래 봉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며

범죄적인 동족대결책동으 30돐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23일 이른바 《남북경제협력협의기구구 성》에 대한 제의를 내놓았 다. 그 골자는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열고 이를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민간 경제대표들이 참여하는 〈남 인데 이것은 철두철미 분렬 을 노린 《두개 조선》 조작책 동의 산물이였다.

평을 통해 《남북경제협력협 의기구구성》제의를 《북남의 통일을 위한것이 아니라 두 개의 조선을 목표로 한 분렬 주의정책에서 나온 (6.23선 언》의 재판》이라고 그 정체 를 까밝히고 통일문제를 평 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6.23선언》 을 취소하고 남조선강점 미 러는 서툰 위장술에 지나지 군을 철수시키며 《반공》정 책과 애국인사에 대한 탄압 을 중지하는 동시에 군사훈 하였다

주체67(1978)년 9월 9일 조 고 교시하시였다.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공 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를 실 현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대 화의 문도 열어놓고있고 남 조선의 당국자들, 각 정당들 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고 하시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으로부터 출 발하지 않고 대화의 막뒤에 서 딴 목적을 추구하거나 대 한 수단으로 리용하려 한다 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으 며 그러한 대화는 아무런 의 공화국정부는 이와 관련하 의도 없다고, 분렬을 위한 대 화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대 화를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 들이 《승공》을 부르짖으면 서 공산주의자들과 《경제협 력》을 하겠다는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것이며 그것은 분 렬주의자의 정체를 가리워보 않는다는것, 만일 남조선당 국자들이 우리와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합작을 하려고 한다면 민족분렬정책을 통일 정책으로 바꾸고 반공정책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현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분렬을 위한 대화 리행할것을 재확인하고 2월

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대 화를 통해 나라의 평화통일 을 실현하자는것이며 북남 대화를 당국자들뿐만이 아 니라 각 정당들과의 폭넓 은 대화로 전환시키자는것 이였다.

이로부터 1979년 1월 23일 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 위원회는 북과 남이 7.4공 동성명의 본래의 리념과 원 칙으로 되돌아갈데 대한 문 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을 즉시 중지할데 대한 문 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 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 조건 즉시 중지할데 대한 문 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 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 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 제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에 대하여 내외에 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자 남조선당국자들은 1월 26일 이에 형식적으로나마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수 없

공화국정부는 1월 31일 조 선중앙통신사 성명을 통하 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 앙위원회의 1월 23일 성명에 지적된대로 지난날 그러하였 던것처럼 앞으로도 7.4공동 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성실히

1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상 대방을 비방중상하는 모든 중지할데 대한 주동적조치를 취한다는것을 내외에 천명하 였으며 남조선측에서도 해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 앙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측 이 1월 31일 조절위원회를 재 개할것을 제의하여온것과 관 하여 온 민족의 총의에 의 하여 통일문제를 풀어나가 야 할 력사적과제가 일정에 나서고있는 조건에서 조절위 원회와 같은 제한된 기구대 신 전민족적인 대화와 협상 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협 의기구로서 민족통일준비위 원회를 발족시킬것을 제의하

이 건설적인 제안에 의하 여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 련하기 위한 쌍방련락대표들 의 접촉이 세차례에 걸쳐 이 루어졌다. 접촉들에서 공화 국은 일관하게 당국자들만 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대표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 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준비 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주장하

그러나 남측은 당국자들 생겨나게 되였다. 만이 참가하는 북남조절위

고집하였다. 그리고는 그 무 선전과 행사를 일방적으로 슨 《실무대표접촉》이라는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와 접 촉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 성하였다. 그런가 하면 공 화국이 남조선에 대한 비난 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방 의 모든 선전수단을 총동원 하여 공화국의 제도와 리녂 을 헐뜯는 비방선전을 전례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일삼 았다. 특히 남조선당국자들 은 나라의 동서를 가로지른 군사분계선 전구간에 《철의 크리트장벽구축을 더욱 다그

> 콩크리트장벽은 남조선당 국에 의해 1977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1 292개의 말뚝 을 박은 군사분계선을 따 라 동서의 산허리와 강하 천을 가로지르며 240여km 에 달하는 전구간에 구축 되였다.

이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 는 8개의 군과 122개의 마을 을 갈라놓고 3개 로선의 철 길을 동강내였으며 220여개 의 크고작은 도로들을 끊어 놓은 분렬과 대결의 장벽이

본사기자 최 광 혁

온 민족의 커다란 관심속에 력사적인 남 북련석회의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남조선에 서 온 일부 인사들이 평양을 떠나기 시 작하던 주체37(1948)년 5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몸소 홍

명희선생의 숙소를 찾으시고 나라의 통일 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则

생

O

0

T

일

하

그이께서는 며칠전부터 선생을 한 번 찾아보자고 하였는데 바쁜 일로 하여 시간을 내지 못하고있다가 오 늘에야 겨우 기회를 얻었다고 하시 면서 그의 건강과 그동안 북조선의 여러곳을 돌아본 인상에 대해 물으

그이께서는 선생이 북조선은 흥왕 하는 집같고 남조선은 망하는 집같 다고 하였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으 로 남북조선의 판이한 현실을 대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

《지금 남조선에서는 백주에 레 로와 학살이 횡행하고 악행이 자행 되며 인민들은 해방된 민족으로서 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고있습니다. … 참으 로 원통한 일입니다. 남조선인민들 의 불행한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조선 인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감시하에 남조선에서 단선을 기어이 조작하려 고 광분하고있는것으로 인하여 우 리 민족은 분렬될 위험에 처하여있 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 을 수수방관할수 없다, 우리 민족 은 예로부터 한강토우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유구한 세월 단일민

족으로서의 순결성을 지켜온 우리 민족이 어찌 오늘에 와서 분렬될수 있겠는가, 만 일 우리가 민족분렬의 엄혹한 형세를 판망 만 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후대들에게 엄 중한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근엄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조국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단선 단정》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대 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런석회의를 개 최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이 제의에 대하여 애국적민주인사들은 물론 얼마전만 하여도

미국에 환상을 가지고있던 일부 사람들까 지도 열렬히 지지하였고 선생을 비 롯한 수많은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 체대표들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여 사선을 넘어 평양으로 달려와 력사 적인 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 그러시면서 우리 민족의 력사에 서 정견이 서로 다른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 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론의하 고 견해의 일치를 본 일은 일찌기 없었다고, 남북런석회의는 우리 민 족의 력사에 국토완정과 민족통일 의 기치하에 각계각층의 애국적인사 들을 묶어세운 위대한 회합으로 영 원히 기록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사상과 정견에 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련석회의 정신과 민족통일의 리념에 기초하여 더욱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하시 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단결만이 민족재생의 유일한 길 입니다. 남북조선의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미제의 반동적인 〈단선단정〉 조작책동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원칙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새 겨안으며 단결만이 민족재생의 길이 고 민족통일을 안아오는 길이라는 신념이 홍명희선생의 가슴속에 더 욱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하기에 그후 그는 북반부에 남아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북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밀에 묶 어세워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던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통일전선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민족대 단결리념, 통일전선운동사의 위대한 경륜 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탑이다.

주체79(1990)년 8월 10일 쑥섬에 세워 졌다.

탑은 탑신과 그밑의 비문판으로 되여 있으며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 고 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되였다는 것을 상징하여 56개의 화강석을 다듬어 세웠다. 탑의 높이는 13.5m이며 질량은 550t이다.

온 외세를 맹목적으로 우상

화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고있

이에 대해 남조선의 진보

단체들과 통일문제전문가들

은 새것에 민감하고 세계관

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청

소년들에 대한 리명박, 박

대결의식주입과 남조선사회

에 만연된 《세계화》바람

부터 빚어진 결과라고 평하

다고 한다.

탑신의 앞면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 로 된 《통일전선탑》이라는 글자가 부각 되여있다. 웃부분에는 쑥섞협의회가 있은 지 42돐이 되는 해에 탑을 세웠다는 의 미에서 42송이의 목란꽃을 새겼다. 탑신 의 뒤면에는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 던 56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이름을 새

탑의 앞면 비문판에는 4월남북련석회 의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모셔져있다. 뒤면 비문판 에는 쑥섬협의회에 참가하였던 대표들의

본사기자

민족에연구와 러붙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 에서 생을 빛내인 통일애국 인사들가운데는 《고루》라 는 별호를 가졌던 리극로선 생도 있다.

사람들모두가 골고루 잘사 는 세상을 동경하며 타향만 리를 방황하던 리극로선생.

리극로선생은 1893년 8월 기울어져가는 조선봉건왕조 의 말기에 경상남도 의령군 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8남 매의 막내로 태여났다.

3살때 어머니를 잃은 선생 은 모진 가난과 천대속에 유 년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향학 열에 불탔던 리극로선생은 가난에 쪼들려 겨우 살아 나가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도우려고 농사일을 하면서 도 가까운 곳에 있는 서당 을 기웃거리며 《어깨글》을 익혔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면 산 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수 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 밑에서는 사람은 설사 살아 있어도 상가집 개만도 못한 법이다.

학교에서 조선말을 했다 고 쫓겨나고 벌을 서는 동 갑또래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 겨 제 나라 말도 마음놓고 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혼자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운 참혹한 현실에 차츰 눈을 뜨게 되면서 선생은 우 리 민족이 《개명》하지 못했 던탓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 았겼다고 생각했다.

1912년에 집을 뛰쳐나온 선 생은 중국 동북지방의 어느 한 독립군부대에서 훈련도감 을 하기도 하고 무송에 있는 백산학교 등지에서 교편을 잡 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수난 자, 망국노가 된 불쌍한 겨 레를 구원할 방도를 모색하 기도 하였다. 또 한때는 중 국 상해에서 로씨야의 씨비리 로, 다시 유럽으로 여기저기 를 오래동안 방황하며 나름 위한 학문탐구에도 열중하였



랑스의 여러 대학들을 떠돌 던 나날에 그는 정치경제학 박사에 이어 철학박사학위까 지 받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 을 탐독하고 연구도 하였으 나 그가 찾고저 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방책은 그 어느 렬한 흠모와 동경심이 그들 책갈피에도 없었다.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가 슴끓이며 1927년 2월 브류쎌 에서 열린 제1차 세계약소민 족대회에 독립요청서를 가지 고 조선대표단 단장으로 참 가하기도 한 그였다.

리극로선생은 동방과 유럽 의 유명하다는 곳은 다 다녀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열 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당시에 세계적으로 명망높은 정치인들, 과학자들과 마주 앉아도 보고 때로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순례하는 다 른 나라의 성지들도 두루 편 답해보았으나 주리고 종된자 의 세상을 끝장낼 《꿈의 나 라》를 이루어낼 길을 종시 찾을수가 없었다.

17년동안에 여러 나라를 방황하면서 빼앗긴 나라를 찾자면 민족의 얼인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 선생은 조 선어연구에 뜻을 두게 되 였다.

1920년대말 조국에 돌아온 선생은 량심적인 언어학자들 과 함께 우리 말과 글의 연 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학술 단체인 조선어연구회에 관여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1930년 9월 어느날 중국 동북지방에 갔던 선생 은 최일천 등으로부터 조선 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강 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인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

애국심과 혈기에 넘치는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 이 외세의존적인 《청원》이 나 민족개량주의적인 《실력 배양》이 아니라 자기 인민 의 힘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무장한 강도 일제 를 무장으로 쳐물리치고 나 라를 되찾을 일념으로 분연 히 궐기한 그 투철한 자주독 립사상에서 리극로선생은 끓 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 었다

학문탐구와 더불어 오래동 안 조선독립의 길을 찾아 끝 없이 방황해온 선생.

그때부터 그의 가슴속에 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 먹이 차올랐다.

리극로선생은 돌아오면서 진정으로 애국을 하고 짓밟 힌 겨레를 구워하려면 민족 의 태양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게 되였다.

그로부터 몇달후에 학술 단체로 유지되고있던 조선어 연구회를 애국적량심을 지닌 각계각층의 광범한 지성인 들을 망라한 반일애국단체 인 조선어학회로 개편한 선 생은 조선어언어규범의 종합 체인 조선말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 갔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은 더 욱 로골화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5년 6월 에 조선말보급을 금지시켰으 며 학교들에서 조선말을 하 는 학생들에게 《불온분자》 의 딱지를 붙여놓고 상급학 교에 갈수 없게 하거나 일 자리도 얻을수 없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사람들이 일 상적인 생활과정에 일본말을 쓰도록 강박하였으며 러행시 에는 일본말을 하지 않으면 차표도 팔아주지 않았고 상 점에서 물건도 살수 없게 하 였다. 지어 로인들이 《황국 신민서사》를 일본말로 외우 지 않으면 《비국민》이라며 마구 때리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책동은 '다. 도이췰란드와 영국, 프 조직전개해나가신다는 격동 우리 말과 글을 없애버림으 고 널리 활용하면서 민족의

로써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 살해버리려는데 그 간악한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때인 1936년 리극 로선생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 게 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제8조에는 노예로동과 노예 교육을 철폐하고 우리 말 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 인 면비교육을 실시할데 대 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 되여있었다.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으 로부터 조선의 말과 글을 꿋 꿋이 지켜내게 하는 문제까 지 반영된 애국의 대강을 받 아안은 리극로선생은 그이의 열렬한 애국애족의 사상에 무한히 감복되는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리극로선생을 비롯한 조선 어학회 성원들은 민족어를 지 키고 발전시키는것이 이 나라 지성인으로서 민족앞에 지닌 마땅한 본분이며 나라를 찾 는데 이바지하는 애국투쟁으 로 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이후 조선어학 회는 조선어연구에 뜻을 둔 사실상의 반일투쟁단체로 발 전할수 있었다.

1937년 9월 선생은 어학회 의 핵심성원들과 회합을 가 지고 김일성장군님을 받들 어 《조국광복회10대강령》 을 실천하는 애국의 한길에 서 변함없이 싸울 맹세를 다 지면서 조국광복회 비밀조직 을 무었다.

김일성장군님 계시여 조선 은 반드시 독립된다는 신심 을 간직한 리극로선생은 조 선어학회사업에 더욱 열정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연무관, 조선씨름협회와 같은 민족적 성격이 짙은 단체들을 개편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 청년들의 심신을 단련시키고 회원들에게 반일감정을 심어 주기에 힘썼다.

그리고 《조선속담딱지》라 는 놀이를 만들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민족의 우수성 이 깃든 조선속담을 많이 알

얼을 지켜나가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돌렸다.

이 나날 선생은 최일천 이 하나하나 수집해놓았던 김일성장군님의 혁명투쟁자 료들과 독립운동자료들, 그이 의 지도밑에 오가자에서 발 간된 《농우》 잡지묶음을 조 국이 해방될 때까지 자기 집 에 깊숙이 간수하였다.

1942년 7월 오래전부터 반일감정을 고취하며 민족 성을 고수하기 위한 선생의 모든 활동을 눈에 든 가시 처럼 여기던 일제경찰은 조 선어학회사건이라는것을 조 작하고 선생을 비롯한 수십 명의 애국적학자들을 체포하 였다.

일제교형리들은 애국적지조를 꺾어버리려고 별의별 악독한 고문을 다 들이대였다. 특히 선생의 애국의지를 꺾어보려고 일제 는 그의 손톱과 발톱을 모 조리 뽑아내고 어깨뼈까지 부스러뜨리는 만행을 감행 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고문으로 써도 조선독립의지와 민족어 를 지키려는 선생의 굳센 지 조를 꺾을수 없었다.

모진 고문끝에 선생은 6년 형을 선고받았다.

가혹한 고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였지만 선생을 비롯한 애국적지식인들은 힊 차게 노래를 부르며 놈들을 전률케 하였다.

> 백두산 어화어화 김대장산아 푸르른 청년전위 모두 모 였네

> 차려라 정신차려 반일의 길에

> 우리를 밀어주는 백두산 의 얼

이 노래는 리극로선생이 지 은 가요 《조선연무관》으로 서 어학회회원들을 비롯한 애 국적청년들이 왜놈들의 눈길 을 피해 즐겨 부르던 노래 였다.

선생은 김일성장군님에 대 한 끝없는 숭배심을 안고 노 래에서 백두산을 김대장산으 로 칭송하였던것이다.

해방과 함께 감옥문을 나 선 리극로선생과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항아리에 넣어 땅 속에 묻어두었던 사전원고들 과 일제에게 압수되였던 일 부 사전원고들을 서울역부 근 통운회사 창고에서 찾아 내여 사전편찬에 다시 착수 하였다.

본사기자

겨넣었다. 이름이 새겨져있다.

통일인식점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 하면 최근 남조선의 청년세대 대를 거는것은 잘못된 현상 속에서 나라의 분렬을 몰아 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라져 사는 우리 민족의 가 슴아픈 력사는 바로 외세에 의해 빚어진것이다.

그래 민족의 머리우에 전 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며 불 공정하고 불평등한 예속협정 들을 강박하여 저들의 전쟁 근혜《정권》을 비롯한 보수 장비를 팔아먹고 남조선청년 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들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 한 전쟁대포밥으로 내모는 외 세가 과연 남조선에 《안전》 에 영향을 받고 자란데로 과 《번영》을 가져다줄수 있 겠는가.

고있다. 통일은 하나의 강토에서 단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옳바 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이 레가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 를 외면하다 못해 통일을 가 을 끝장내고 다시 하나가 되

로막고 방해하는 외세에 기 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민족 중대사이다.

더구나 외세의 간섭을 배격 하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일 떠세울 통일조국은 자주로 존 엄높고 청년들이 자기의 희망 과 요구를 마음껏 실현해나 갈수 있는 부흥하는 통일강 국이다. 이는 남조선에서 공 개적으로 울려나오는 목소리

이기도 하다.

고 한다.

하기에 《한국대학생진보련 합》, 《21세기한국대학생련 합》을 비롯한 남조선의 진 보적인 청년운동단체들은 청 년세대들속에서 옳바른 통 일인식을 정립하고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기 위한 활동 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 을 다양하게 벌려나가고있다 │ 대로 민족의 비운을 가시기

본사기자 김영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의 호전세력들이 민심의 이

러한 요구에는 귀를 틀어막

고 외세와 침략적인 핵전쟁모

의판을 벌려놓고 전쟁연습을

강행하려 하는것은 무모하고

도 로골적인 대결망동이 아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

기마런이라고 그러한 대결망

동이 도화선이 되여 언제 어

중에는 오직 반공화국압살의

어리석은 대결야망밖에 없다



진실은 력사의 락엽속에 묻힐수 없다

근 70년이 흘렀다.

그러나 전쟁의 파편은 수많은 사람 들의 가슴마다에 아물수 없는 상처를

로근리량민학살사건도 남조선인민들 속에 원한과 분노의 아픈 추억으로 뚜 렷이 새겨져있다.

때는 1950년 7월이였다.

7월 25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의 어느 한 마을에 기여든 미군은 후 방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마을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였 다. 여기에 타지방에서 피난온 사람들 까지 합쳐 500~700명이 모이게 되였 다고 한다.

미군은 그들을 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다가 로근리의 쌍굴다리에 이르러 어디 엔가 무전을 치고 사라져버렸다.

을 뗠구고 기총사격을 하여 100명가까 이 학살하였다.

다시 나타난 미군은 400~500명의 사람들을 쌍굴다리의 굴안에 밀어넣고 기관총사격을 해댔다. 이렇게 피난민들 을 굴안에 가두어놓고 며칠간이나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굴안은 삽시에 시체 로 가득차고 주위는 피비린내로 숙쉬기 조차 힘들었다.

사흘째 되는 날 굴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00여명뿐이였다고 한다.

이것이 생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중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후 오늘에

남조선사회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정권교체》를 반드시 하

겠다는 《국민의힘》이 내

흔드는것이 《정권심판론》

악성전염병사태, 부동산문

제, 재난지원금문제 등 《정

부》의 실책들을 그 무슨

《공정과 정의》에 련계시키

면서 《무능》, 《좌파독재》

당이고 《국회》의 100석이

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국민의힘》에도 큰 책임이

걸음걸음 뒤다리채기만 하

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대책을 의논하기보다는 도적

이야 하고 고아대고 지어 쇠

몽둥이와 함마를 들고 뛰여

라고 비난한다.

있다

읦

0

0

7

하여 남조선의 민심은 말그대로 아우성이다.

《정권심판론》, 과연 통할것인가

그러나 따지고보면 제1야 다는 저들의 집회가 응당했

들어 《국회》를 란장판, 싸 누가 받아야 하는가.

움판으로 만들어 민생토의에

훼방을 논것밖에 없었다는것

만 보아도 지난해 저희네 패

거리들이 진행한 집회를 두

고 《살인자》라고 몰아대더

니 민주로총의 집회에 대해서

는 눈감아준다고 두덜대는것

을 보면 전염병을 막자는것보

비난과 훼방으로 《식물국

회》를, 쇠몽둥이와 함마를

들고 《란장판국회》, 《동물

리는것이 바로 《국민의힘》

이 유유하는 《공정과 정의》

인가. 그렇다면 과연 심판은

그를 위해 통합정당의 당

《보수대통합》을?

중의 하나이다.

국회》를 만드는것이, 역병사태속에서도 집회를 벌

다는 검은 속심이 엿보인다.

악성전염병 4차대류행문제

은 누구나 알고있다.

는 로근리량민학살사건이다.

최근 미군이 전쟁당시 서울지역을 무 차별적으로 폭격한 자료가 새로 공개되 여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은 조선전쟁 당시 인민군대의 남진을 저지할 목적 으로 미군이 남조선땅에 폭탄을 투하 하는 장면이 최초로 공개되였다고 전

그러면서 당시 미극동공군사령부가 **《**B−29**》**폭격기 47대를 동원하여 서울 조차장을 폭격함으로써 조차장안의 철 도가 파괴되고 그해 8월까지 이어진 무 차별적인 집중폭격으로 무고한 서울시민 1 58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하였다.

자료들은 미국국립문서보관청에서 보관하고있던 원본과 편집영상 17점, 사진 80점으로서 1950년 7월 16일 미 얼마후 두대의 비행기가 나타나 폭탄 군이 서울지역의 룡산철도정비장(당 시 서울조차장)과 룡산기지일대를 폭 격한것들이라고 한다.

> 피난민들속에 인민군대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무고한 평화적주민들 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로근리량민학살 사건이나 인민군대의 남진을 막아보겠 다고 서울조차장을 집중폭격하여 서울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룡산대폭격이 나 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감행한 용서 못할 반인륜적인 죄악들이다.

미국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 는 법이다.

전례없는 폭염으로 숨쉬기도 가쁜데다 악성전염병의 4차대류행사태로 리당략과 집권야욕실현에만 혈안이 되여있어 각계의 비난을 받고

명과 당헌당규개정을 요구하

며 합당을 거부하고있는

《국민의 당》을 얼리고 협박

하는 한편 전 검찰총장, 전

경제부총리 등 당밖의 인물

들을 자기 당에 끌어당겨보

려고 추파를 던지고 압력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안팎의 보수세력이 뭉쳐야

보수의 《통합》소리는 처

불과 몇년전 《보수우파

통합》, 《중도와 보수의 련

요즘 《국민의힘》이 《변

당지도부를 젊은 층으로 꾸

리고 청년창업지원, 청년주택

대책 등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

는듯이, 그런가 하면 5.18광

로 인정한다, 광주에 내려가

《사죄》한다 하면서 《진

화와 혁신》을 한다고 곧잘

한다는것이 《보수대통합》

가하기도 한다.

의 골자이다.

떠든다

음 듣는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언에 의해 밝혀진 미군에 의한 치멸리 이르기까지 장장 70여년간 남조선인민 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 은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왔는가. 그 로 인해 우리 겨레가 흘린 피와 눈물 은 삼천리강토 그 어디에나 진하게 슦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사대매 국세력은 두 녀학생이 미군의 무한궤 도에 갈가리 찢기여도 《동맹》을 먼 저 떠들고 핵전쟁연습반대를 웨치여도 《안보》를 운운하며 덮어놓고 미국편 만 들고있다.

> 이번에 서울시당국도 룡산대폭격이 있었던 7월 16일에 우의 자료들을 전시 하면서 《6.25전쟁발발로 서울과 룡산 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발전, 성장해왔는지 집약적으로 볼수 있는 기 회》가 된다고 미군의 만행을 비호두둔 해나섰다니 이 얼마나 얼빠진 망동이고 망발인가 하는것이다.

>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하지만 아픔의 근원을 잊어서는 안된다.

《잊혀진 전쟁의 잊혀진 이야기》로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로근리의 웨 침인것처럼 남조선강점 미군의 야수 적인 만행들이 《동맹》이라는 너울 아래 잊혀진 력사의 잊혀진 사실이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룡산대폭격자 료들이 다시금 웅변해준다.

진실은 력사의 락엽속에 묻힐수 없

민생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

최근 남조선군부세력이 상 전과 빈번한 쑥덕공론을 벌 다고 한다.

지난 14일 남조선의 국방 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 장, 륙, 해, 공군의 참모총장 들이 남조선에 날아든 미전략 사령부 사령관을 줄줄이 찾 아가 그 누구의 《핵 및 미 싸일위협》을 운운하며 《긴 밀한 공조유지》. 미국의 《억제태세》 강화를 구걸하였 다고 한다.

그 전날에도 남조선군부우 두머리들은 남조선강점 미군 사령관을 찾아가 《한미동 맹》강화, 남조선미국합동군 사연습의 필요성과 그 시행 방식, 규모 등에 대해 모의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남조선미 국의 군부수장들이 조선반도 및 지역내 안보정세 등에 대 한 평가에 기초하여 북 의 《핵, 미싸일위협》억제를 위한 군사적협조를 강화하기 로 하였다, 미국의 《3대핵 전력》을 총괄하는 미전략사 령관이 《북핵위협》에 대응 할 준비태세가 완벽하다고 의미심장하다, 언급한것이 합동군사연습시행이 락착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핵

를 구걸하고 상전이 주도하 는 여러 형태의 전쟁연습에 머리를 들이밀고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또 그런 모의판이 벌어지 고 전쟁불장난을 벌려놓을 때마다 조선반도정세가 격화 되고 지역의 평화가 위협당

위험천만한 전쟁대결보의핀

이다

우산》 제공을 담보로 남조선 을 《한미일3자공조》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려는것이 분 명하다 등의 이러저러한 분 석과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남조선군부세력들이 미군 부세력들을 만나 쑥덕공론 을 벌리는것은 이번이 처음 이 아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그 누구 의 《위협》을 구실로 《동 맹》강화, 《억제태세》강화

하였다는것도 주지의 사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조선반 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서도 그렇고 더욱더 악화되 는 보건위기상황과 그에 따 른 민생을 위해서도 남조선 군부가 동족을 반대하는 전 쟁연습에 엄청난 혈세를 탕 진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 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

이와 관련하여 지금 인터

네트에는 매일같이 《평화

의 축제가 올림픽인데 일본

의 저런 정신으로 무슨 평

화가 오나.》, 《애초부터

어야 한다.》는 글들이 오

르고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스

가와 마주앉는것자체가 모

으로부터 반드시 사과와 배

상을 받아내자.》는 분노의

함성이 날로 거세지고있다고

올림픽경기대회의 사명이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협조를 강화하고 세계평화

와 사회적진보에 이바지하는

욕이다.》, 《파렴치한 일본

올림픽을 보이꼬트했

느 순간에 대재앙으로 번져 질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수 사실들은 호전세력들의 안

닐수 없다.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상전 과 불순한 공모결탁을 하고 위험천만한 망동에 매달릴수 록 그것은 조선반도와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 정을 파괴하는 범죄의 구렁 텅이에 더 깊숙이 빠져드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평화의

지난 23일 말썽많은 도교 올림픽경기대회가 드디여 시 작되였다고 한다.

문제는 올림픽의 숭고한 리 념에 복무해야 할 이번 경기 대회가 일본의 파렴치한 행 위로 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대회로 되고있는것

여느때는 동작이 느리지만

먹이만 발견하면 빠른 혀를

뻗쳐 잡아먹는 카멜레온처럼

《국민의힘》도 행동보다는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

카멜레온은 번식기를 제외

하고 혼자 산다던데 《국민

의힘》도 여느때는 오만스럽

게 놀아대다가도 선거철만 되

면 《통합》. 《려대》를 내

결고 어느 누구에게나 추파 를 던지는가 하면 《혁신》.

《쇄신》 한다면서 민심을 끌

어당겨보려고 별의별짓을 다

속담에 남의 죽음이 내 고

뿔만 못하다고 했는데 남조

서도 《민생》을 누구보다 제

혀가 제일 발달되여있다.

일 많이 떠들지 않는가.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 인 독도가 일본령토로 표 기된 지도를 도교올림픽관 련홈페지에 뻐젓이 게시한 데 이어 7월 중순에 발표 한 《2021년 방위백서》에서 남조선방위당국에 의한 부정 적대응이 계속되고있어 방위 성과 《자위대》는 지속적으 로 남조선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밝히 는 등 적반하장격의 《독도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과거 일제강 점시기 올림픽선수로 출전하 였던 조선사람을 일본인으 로 둔갑시키는것과 같은 력 사외곡책동도 일삼아 남조선

령유권》 주장을 계속하고있

민심의 분노를 자극하고있다

고 한다.

데 있다는것을 모르는 사람 이 없다. 악성비루스감염증사

태가 세계를 휩쓸고있는것으 로 하여 도꾜올림픽경기대회 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는 갈수록 고조되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속에서 인류의 평화 축전인 올림픽마저 저들의 추악한 정치적목적과 재침 야망실현에 악용하는 왜나 라족속들의 행태는 더 나 쁜것이다.

현실은 일본이야말로 조선 민족의 천년숙적이고 악성비 루스보다 더 위험한 평화의 파괴자라는것을 다시금 뚜렷 이 실증해주고있다.

신성한 올림픽경기대회를 저들의 추악한 정치적목적실 현에 악용하는 일본은 세상 사람들의 규탄과 배격을 받 아 마땅하다.

본사기자 박철 남









제개비네 집안이 《보수대통합》 역시 《국 민의힘》이 요란히 광고하는것

최근 남조선의 병 원들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 問 들이 거리낌없이 감

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잡지 《주 간경향》은 《병원 직인가요》라는 제 목의 기사에서 병 있는 의료법위반행 위들에 대하여 폭로 하였다.

행되여 사회적우려

와 분노를 자아내

기사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또 다른 사각지대 는 료양병원이다. 료양병원은 받는 금액이 일정하기때 문에 환자에게 쓰 는 돈을 아낄수록 병원수익이 올라간 다. 그래서 일회용 품의 재사용은 말 할것도 없고 감염 위험때문에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수액 하나를 한두달씩 여러 명의 환자에게 돌려가며 쓴 정에서 일어난다. 개인일탈이 다고 한다. 또 혈액이 묻은 아니라 병원이 저지르는 조직

주사바늘 등을 씻어서 재사 용하거나 의료용페기물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자의 배설물이나 체액 등으로 오 염된 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 에 몰래 버린다고도 한다. 최악의 이야기는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환자에게 Ltube(코로 긴 고무관을 넣 은 합법적인 범죄조 어 위장까지 닿게 해 입으 적인가요》라는 제 로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 약 로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 약 이나 미음 등을 주는 장치) 원내에서 자행되고 를 넣다가 페로 잘못 들어 간 사고였다. L-tube를 넣 고나서 위장까지 잘 들어갔 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미음 을 주는 바람에 폐로 끈적거 리는 미음이 들어가고 환자 《의료법위반의 의 산소포화도는 급격히 뗠 어졌다. 그리고는 L-tube를 넣었다는 기록자체를 삭제했 다. 가족들에게는 환자상태 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이야 기했다. 며칠이 지난 뒤 그 환자는 사망했다. 가족들은

> 로인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 고 생각했지만 그 할머니는 고 하였다. 생의 마지막 며칠간을 미음 이 가득찬 페로 밤새 헐뗙거 리며 죽어가야 했다. 이처럼 의료법위반은 주로 병원이 리 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과 겠는가.

적인 범죄인것이다.》

잡지는 글에서 끝으로 서 울의 한복판에는 이런 범죄 자들이 가득한 소굴이 적지 않지만 그들스스로는 자신이 범죄자라는 인식이 별로 없 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병원 은 합법적인 범죄조직인가고 의미심장한 물음을 제기하였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사고 들이 근절되지 못하고있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의사들은 살인죄를 저질러 도 의사자격을 잃지 않고 성 범죄 등 강력범죄전과가 있 는 의료인들이 엄연히 존재하 고있는 남조선의료계의 구조 적모순과 함께 사람들의 생 명을 한갖 돈벌이수단으로밖 에 보지 않는 병원들의 그 릇된 관점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생명우 에 돈을 놓는 그런자들에게 서 의술은 인술이 아니라 《돈술》 이라고 해야 하지 않

본사기자 김 광 혁

는가. 카멜레온도 혀를 차는 변신

대》 등을 운운하며 《국민

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

당》이 《바른정당》, 그리고

당시에 진보와 민주를 제창

하던 《국민의 당》과 《통

합》한다고 정치신파극을 벌

그때의 목적도 역시 《제2의

《국민의힘》이 떠드는

《정권교체》와 《보수대통

합》. 파쑈가 란무하는 보

수집권을 실현해보려는 야

망의 쌍피리소리가 아니겠

박근혜정권》을 창출해보려

는 역겨운 입맞춤이였다.

린적이 있었다.

변신으로 유명한 카멜레온 도 혀를 찰 정도이다.

보》로 변신하는 《국민의힘》 이 카멜레온을 릉가하지만 마 주인민봉기를 민주화운동으 땅히 비길데가 없기도 하다. 도 카멜레온과 류사하니 말

보》로 완전히 변신한것처럼 온갖 누죽을 부린다

때에 따라 《중도》, 《진 변신뿐이 아니라 활동방식 선인민들은 극심한 민생고에

지치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 감하는 사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아픔마저 당리 당략과 집권야망실현에 악용 하는 무리들을 과연 무엇이 라고 불러야 하는가.

본사기자 김정혁

과거죄악= 없는 일본의

민족고전소각 出泗

조선은 일찍부터 출판인쇄 업이 발달하여 전적(고전적 의의를 가지는 책)들이 수많 이 간행됨으로써 책이 많은 나라라는 의미에서 《문헌지 국》으로까지 불리웠다.

이러한 조선의 민족고전들 역시 일제의 조선침략과 함 께 수난의 운명을 면치 못하 게 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 리 민족의 애국정신을 고취 하는 서적들에 대한 조사놀 음을 벌려놓고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도서들을 압수하여 소각해버리는 만행을 감행하

조선강점직후 조선총독 데 라우찌는 《조선의 관습과 제반 제도조사》라는 미명하 에 전국의 각 도, 군경찰서 를 동원하여 력사책을 비롯 한 각종 도서들을 대대적으 로 압수하는 소동을 벌려놓 았다.

일제는 서울과 지방의 책 방, 향교, 서원, 민가들까지 샅샅이 뒤져 《초등본국력

사지리》, 《중등본국력사지 리》, 《유년필독》, 《동국 사략》, 《국민수지》 등 력 사지리도서들과 애국명장들 에 대하여 쓴 《리순신전》, 《을지문덕전》 등의 도서들 까지 압수하여 소각하였다.

이 시기 일제가 감행한 도 서략탈과 소각만행에 대하여 서는 여러 문헌들에 전해져 당시의 죄행을 폭로하고있다.

〈최면암집〉, 〈소의신편〉, 〈양명선생실기〉 등 30여종 의 수십만권을 모두 불살랐 다.》, 《데라우찌는 1910년 11월부터 일본헌병, 경찰, 조 선인헌병보조원 등을 동원하 여 종로일대 서점과 전국각지 의 서사, 향교, 서원, 구가, 량반숙가 등을 급습하여 장 지연저 (대한신지지), 리채 병저 (애국정신), 신채호저 (을지문덕) 등 무릇 51종

의 20만여권을 불사르고 또

한 이러한 류의 서적의 판매

를 엄금하며 그 소유자와 열

독자를 처벌하였다.》라는 기 서소각만행의 일단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1910~1918년에 1차

로 《자료수집》의 명분을 내 걸고 전국 방방곡곡의 서원, 사찰, 향교, 서당들을 대상 으로 경찰, 관리들을 동원하 여 강제로 고전들을 수색압수 하였으며 이 시기에도 다 수 나 징역을 산것이 심히 많았 《〈초등본국력사지리〉, 탈할수 없게 되자 1937년까지 〈동국사략〉, 〈리순신전〉, 그 수탈시기를 연장하였다.

> 일제는 1차로 수탈한 도서 들을 소각하는 한편 수많은 어용학자들을 전국각지에 내 보내여 1937년까지 수많은 도서들을 압수하였다.

> 일제는 도서들을 불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력사책들을 숨겨두거나 몰래 읽는 애국 적인민들에 대해서는 감옥으 로 끌어가는 폭거도 감행하 였다.

일제의 서적압수소동과 검 거만행에 대하여 당시의 한 출판물은 《합방즉시 조선력 회수하여 없애버리려던 저 사를 적은 서적을 몰수하여 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

불무지에 던져버렸고 책방과 게 되자 일제는 《조선사》 록들은 일제의 범죄적인 도 민가를 불문하고 조직적으로 를 편찬한다는 미명하에 수 가가호호를 대수색하여 우리 많은 귀중한 사료들을 몰수 나라의 력사에 대한것이 반 하여 저들의 외곡된 력사편 페지라도 있으면 반드시 불 태워버렸으며 감히 조선력사 놓고 모조리 없애치우는 범 책 1권을 숨겨둔자가 있어 도 범죄시하였다. … 조선사

> 읽은 죄로 30일간 구금되거 다.》고 폭로하였다. 러는 일제의 만행에 격분한 저질렀다. 애국적인민들은 력사책을 더

욱 깊숙이 보관하고 탐독하

람들이 자기 나라 력사책을

자들도 《〈사료차입〉에 있어 았다. 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 켜서 이로 인하여 사료제공 자들에게 불안을 주어 조사 에 불편을 주게 한 례가 많

없었다. 조선의 력사도서들을 몽땅

았다.》고 자인하지 않을수

찬에 도움이 될 자료만 남겨 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일 제는 조선에서 쫓겨가면서 어 용사가들을 시켜 《조선사편 수회》 문서와 수많은 조선사 사료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 그러나 민족정신을 말살하 는 야만적인 행위를 또다시

일제의 이러한 민족고전소 각말살행위로 하여 해방전까 지 조선의 귀중한 민족고전 이에 대하여서는 일제침략 들은 거의나 사라져버리고말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일환으로 력대로 내려오는 귀 중한 민족문화유산을 압수하 여 수십만권이나 소각하다 못해 조선민족의 력사까지 외곡날조한 일제의 야만적인 책동이야말로 치뗠리는 반인 륜적범죄행위이다.

본사기자 주 광일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부모가 많은 오누이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1동 에 가면 누구에게서나 한 오 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올해 15살, 13살인 그애 들의 이름은 리혁일, 리영 연이다.

여느 애들처럼 웃유도 많 고 노래도 많으며 꿈도 많 은 혁일이와 영연이를 보며 사람들은 그애들이 부모없 는 아이들이라는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부모 없는 그애들에게서 한점 그 늘도 찾아볼수 없는것인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에 아버지를 잃은 오누이는 두 해정에는 어머니마저 잃게 되였다.

혁일이와 영연이는 하염없 이 눈물만 흘리였다. 그러 나 그애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희망에 대해 미처 걱 정할 사이도 없이 고마운 사람들이 련이어 찾아왔던 것이다.

어린 너희들끼리 어떻게 살겠는가고, 자기 집에 가 서 함께 살자고 진정어린 목 소리로 말하는 평천1동사무 소의 김정미녀성, 그애들을 데려가겠다는 고모와 고모 부에게 나이가 적지 않은데 자기들에게 맡기라며 손목 을 잡아끄는 이웃들...

혁일이와 영연이네 집의 크고작은 모든 일이 온 마 을의 관심사였다. 그런 속 에 동의 일군들과 이웃들속 에서는 오누이의 옷이며 침 구류 등을 세탁해주는 어머 니가 생기고 숙제검열을 하 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의 런계밑에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는 어머니가 생겼으 며 부엌살림을 도맡아 보살 퍼주는 어머니도 생기게 되 였다.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동 안고급중학교와 창덕학교의 교원들도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지 한달 남짓이 되던 어느날 동 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 교 원이 영연이를 찾아왔다.

몇달전 영연이가 다니는 평천구역 간성소학교에 성악 가수후비선발을 위하여 찾 아왔을 때 인물곱고 노래도 잘하는 그애를 선발했던 교 원이였다.

영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교원은 말했다.

《영연아, 너는 말했지. 네 가 가수가 되는것은 어머니 의 소원이였다고. 우리 학교



단다. 함께 가자.》

이렇게 되여 영연이는 소 학교를 졸업하면서 동안고급 중학교 조기성악반에 입학하 게 되였다.

혁일이도 창덕학교에 입학 하여 수학수재반에서 공부 하게 되였다

고마운 어머니조국은 부모 를 잃은 오누이의 희망도 사 러깊게 헤아려 활짝 꽃피워 준것이였다.

그애들이 창덕학교와 동안 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으로 첫 등교를 하던 날 온 마 떠들썩했다. 앞가슴에 꽃송이를 달고 집을 나서는 오누이를 이웃들이, 동사무 소일군들과 녀맹원들이 학교 에까지 따라나섰다.

영연이의 담임교원인 신은 정선생은 그때 일을 돌이켜 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에는 영연이를 따라 온 숱한 사람들이 친척들이 라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런 데 알고보니 남남이였습니 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 고

마운 사회주의제도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정속에 혁 일이와 영연이는 훌륭한 교 정에서 마음껏 재능의 나래 를 펼치고있다.

창덕학교의 문희남선생은 《혁일이가 우리 학교에 입 학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 니다. 하지만 혁일이 하면 온 학교가 알고있습니다.》 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

였다. 그가 혁일이를 담임한 날 교장선생의 부름을 받게 되

교장선생은 새로 담임한 학급에 리혁일이란 애가 있 지 않는가, 그의 학습정형이 며 생활정형을 매일 알려달 라고, 그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후날에야 문희남선생은 전 종호교장선생이 왜서 학교 선생님들이 너를 기다리고있 의 수많은 교원들과 학생들

을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속 에서도 그렇게 혁일이를 두 고 마음을 쓰는가를 알게 되였다.

혁일이가 감기에라도 걸릴 세라, 학용품이 부족할세라 세심한 정을 기울이는 교장 선생의 모범을 따라 온 학교

가 그를 관심하였다. 남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혁일이가 등교할 때에도, 집 으로 돌아갈 때에도 늘 한 손에 들고다니는 축구공에 도 사연이 있다.

그 축구공은 문희남선생 이 새 축구화와 함께 혁일이 에게 기념으로 준것이였다. 옷장에 걸려있는 새옷들. 장에 가득차있는 학용품들, 사계절 신을수 있게 신발장 에 빼곡이 들어있는 신발

들... 모두 이웃들과 고마운 사 람들이 마련해준것들이다. 올해 설날 오누이의 집에 는 또 한명의 어머니가 찾

아왔다. 평천짜장면집 책임자 리옥 심녀성이 성의껏 준비한 음 식을 안고 찾아온것이였다. 명절이면 의례히 집에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특식 을 해주는것이 례상사이다. 그 마음으로 오누이를 위해 갖가지 특식을 해가지고 온

것이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혁 일이와 영연이, 온 동네, 온 학교의 사랑을 받는 오누이 이다.

비록 부모를 잃은 오누이 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사랑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나라 같으면 사회의 버림을 받고 내던져 졌을 이들이 피보다 진한 사 랑과 불보다 뜨거운 정속에 한점 그늘없이 살고있다.

이런 고마운 제도, 고마 운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 겠는가.

본사기자 김 춘 경

해외동포의 애국지성이 깃든 공장

亚

경련애국사이다공장, 애국편 공장, 만경대애국늄창공장… 해외동포상공인들의 애국 적소행을 전하는 공장들이 공화국인민들은 이 공 장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해외에서도 어머니조국의 부 강발전을 위해 애쓰는 동포 삿곳인들의 애국의 마음을

새겨보군 한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 한 애국최종락피복공장에도 해외동포의 애국지성이 뜨겁 게 깃들어있다.

공장의 연혁사에 대해 묻 는 기자에게 로경희지배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장은 애국적상공인 인 최종락동포가 어머니조 국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 고싶은 애국의 한마음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80돐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기 증한 공장이다.

사실 자신의 피땀으로 마 련한 재부를 내놓는다는것이 쉽사리 결심을 내릴 일은 아 니였다.

더우기 돈이 모든것을 지 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 의 일본땅에서 살면서 일생 을 다 바치다싶이 하여 한푼 두푼 어렵게 마련한것이기때 문이였다.

그러나 나라없던 그 시절

이역만리 일본땅에서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당하다 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자 주로 빛나는 공화국을 창건 하시여 긍지높은 삶을 누리 게 된 재일동포들이였다

하기에 최종락동포는 조국 을 위해 선뜻 용단을 내리 였었다.

그의 이런 소행을 누구보 다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높 이 평가하여 내세워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최종락동포에게

영예의 김일성훈장과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 진 시계도 안겨주시고 조국 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 였다. 그러시고는 설계력량

과 건설력량을 친히 시고 공장을 훌륭히 건설하 도록 세심히 보살퍼주시였으 며 공장의 명칭도 그의 이름 을 달아 《애국최종락피복공 장》으로 하도록 크나큰 배려 를 돌려주시였다. 그 사랑속 에 공장은 주체81(1992)년

4월에 조업하였다. 공장구내에는 사회주의조 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모든 성의를 다하고있는 최종락동 포의 애국심을 평가하여 세

운 충성비도 세워져있다. 비문에는 멀리 이국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조국인민 들과 함께 숨쉬며 사회주 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하는 최종락동포

애국적열의와 커다란 공로를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 를 세운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오늘날 공장에서는 발전 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수십 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 고 합리적인 생산방법과 선 진가공방법도 받아들이면서 피복제품생산을 힘있게 리고있다.

공장에서는 여러 생산기지 도 현대적으로 새롭게 꾸리 생산토대를 강화함으로 달린옷과 녀자외투, 어 린이옷, 승마복 등 생산품 종수를 늘여나가고있다. 뿐 만아니라 재자원화사업을 주 선으로 틀어쥐고 생산과정 에 나오는 여러가지 부산물 들로 작업복과 장갑을 비롯 하여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제품들도 생산해내

고있다. 공장이 일떠선 초창기부터 현장에서 일하여왔다는 리금 녀작업반장은 말하였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인 민생활문제에 그토록 심려하 시며 사랑의 특별명령서도 발 령 하 신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 지할 질좋고 맵시있는 옷제 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 습니다.》

본사기자 김진 혁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2019년 3월 10일 공화국에 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 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조국에 체류하는 여러 기회 에 걸쳐 선거현장을 직접 목 격하고 깨달은바이지만 그날 도 나는 정권의 주인인 조국 인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얼 마나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는 가를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돈에 의해 사람들의 지위가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있다면 누구 나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 로 될수 있는 조국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 도 할수 없는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는 선거장과 선거자 들의 성실한 태도로 조국인 민들은 또 한번 자기 주권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심이 얼마 나 높은가를 보여주었다.

이 나라의 어느 일터에서 나 볼수 있는 소박한 근로자 들이 자기자신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선거하고 명절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본 이방인들은 대번에 조선 의 《인권문제》를 떠들어대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라 는 서방의 선전이 완전히 거

짓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나는 또다시 확신했다.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진 정한 인민의 주권을 비쳐주 는 맑은 거울이다.》라고. 이날 내가 새롭게 확신한 것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날 나는 TV로 선거 에 참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을 뵈옵게 되였다. 그분께서 투표하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 누 구나 쉽게 궁금증을 느끼리

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겠는가. 경제인이 겠는가, 군인이겠는가, 농민 이겠는가.

그러나 경애하는 그이께서 몸소 선거장에 나오시여 투 표하시고 만나주신 대의원은 다름아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이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나와 많이 친숙해진 대학 이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또 실지 여러번 참관한 전적

이 있기때문이다.

를 창작하였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8년에도 창립 70돐을 맞 이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시였다. 이 대학에 대하여 앞서 많 이 이야기하였지만 평양의 중 심구역에 위치하고있는 김 책 공 업 종 합 대 학 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함께 공화 국에서 손꼽히는 종합대학으 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조선 의 첫 종합적과학기술인재 양성기지이다

대학의 이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전 내각부수상이며 산업상이였던 김책의 이름을 따서 지은것이다.

창립당시 불과 몇개의 학 부와 수십명의 교원들이 전 부였던 대학은 오늘 수십개 의 학부와 연구소들, 수많은 교원, 연구사력량을 가진 과 학기술핵심골간을 키워내는

지금 어딜 가나

젖제품이야기이다.

밖에 나가면 만나

는 사람들마다 국 가적부담으로 전

국의 어린이들에

위해 돌려주

그럴 때마다 생각

국가적부담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대학창립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

걸음 깃들어있다.

되였다.

시여 1948년 9월 평양공업대 학(전신)을 세워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 구건설시기에는 교원, 연구사 들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

원종장, 나라의 과학기술교

육의 최고전당으로 장성강화

대학의 창립과 강화발전에

는 절세위인들의 업적이 걸음

업을 중단없이 할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그 후 대학을 여러차례 현지지도 하시면서 나아갈 방향과 방 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50년대말 대학에 첫 자욱 을 새기신 때로부터 이곳에 여러차례 나오시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006년 새해 정초에도 완

공된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대학이 정보산 업혁명의 개척자답게 과학기 술인재육성사업에서 더 높이 도약할데 대한 믿음을 주시

였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속에서 지난 70년 간 100여명의 공화국영웅, 로 력영웅들과 수많은 인민과학 자, 공훈과학자, 학위학직소 유자들이 배출되였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을 찾 으신 그때로부터 얼마 안 있 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이 대학을 찾으신것 이다

한 나라 령도자가 내짐는 한걸음한걸음에는 참으로 많 은 뜻과 의미가 실린다.

다름아닌 김책공업종합대 학에 꾸려진 선거장에 나오 시여 대의원후보인 대학총장 에게 투표하신것은 과학교육 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부문의 발전을 도모하시 러는 의도가 있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재중동포 김 영 란

May Mental Sugan



공화국의 유치원들에서 어 린이들에게 민족무도인 태권 도를 배워주는 사업이 활발 히 벌어지고있다.

유치원어린이들에게 태권도 를 꾸준히 배워주어 나어린 태권도유급자들을 많이 키워 내고있는 평천구역 미래유치원 도 그런 유치원의 하나이다.

한창 응석을 부릴 5~6살나 이의 어린이들이 국내에서 가 장 나어린 태권도유급자들이 라는 사실은 이곳을 찾은 우 리의 호기심을 동하게 했다.

이곳 유치원의 김향숙원장 은 유치원시절부터 태권도를 배워주면 어린이들의 육체적 발육과 성장에 좋은것은 물 론 어려서부터 내 나라, 내 민족을 잘 알고 자기의것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 게 해준다고 말하였다.

미래유치원에서는 교양원들 부터가 태권도를 직심스럽게 배워 3급이상 또는 1단의 기 술을 소유하도록 한데 기초하 여 유치원의 모든 어린이들에 게 태권도를 배워주고있었다. 이 나날 유치원에서는 참 고도서 《유급자들을 위한 태권도배우기》와 다매체교

육편집물 《어린이태권도배우

기》, 어린이들이 음악에 맞

추어 태권도동작을 숙련할수

있게 하는 《어린이태권도》

우리는 나어린 태권도유급 자들을 훌륭히 키워내고있는 김진옥교양원도 만나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어 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된 김진옥교양원은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우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왔다.

지난 시기 유치원어린이들 의 지능계발을 위한 여러건 의 교수방법을 창조한 그는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꾸준 히 배워주고있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태권도 를 왜 배워야 하는가를 알기 쉽게 알려주고 팔동작, 발동 작의 기초로부터 지르기, 막 기를 비롯한 결합동작 그리 고 천지틀, 단군틀동작들을 하나하나 배워주고있었다.

그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유치원어린이들이 성격이 활 달해지고 키도 부쩍 컸을뿐 아니라 운동능력과 집중력도 높아져 유치원교육과정안을 더 훌륭히 집행할수 있게 되

였다고 말하였다. 이곳 유치원에서는 시, 구 역의 유치원교양원들앞에서 태권도교수에서 발휘된 우수 한 경험과 함께 태권도동작 들을 보급하는 사업도 짜고 들고있다.

오늘도 미래유치원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민족무도의 기초기술을 배우도록 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림 광 훈

게 젖제품을 비롯 한 영양식품을 공 급할데 대한 조치 가 취해진 소식에 접하고 어린이들 0 을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77 을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목메 없

여 이야기하고 집 에 들어가면 손녀, 외손녀들이 맛있 는 우유를 먹게 되 였다고 좋아한다. 이 깊어지군 한다. 로 전국의 어린 이들에게 젖제품 을 비롯한 영양식 0 품을 공급하는것

이 당의 정책으로 수립되는 위대한 후대사랑의 서사 시가 또다시 수놓 아졌으니 감사의 인사를 무슨 말로 어떻게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 지구상에 나라가 많지만 우리 조국에서처럼 당과 국 가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나라가 그 어디에 또 있겠 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시려

는가. 미래가 없는 자본주의사 회에서는 우리 조국에서처 럼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 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

급한다는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남조선사회를 등지고 인간사 랑의 화원, 은혜로운 공화국 의 품에 삶의 닻을 내린 때 로부터 30여년세월 나는 어 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 받들고 후대들을 위해서라 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설과도 같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 를 눈물겹게 체험하였다.

얼마나 감동깊은 이야기들 이 이 땅에 꽃펴났던가.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을 찾아 달리는 물고 기수송차와 곶감수송차에 깃

든 이야기, 《민들레》학습장

과 《해바라기》학용품에 어 린 사랑의 이야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더 잘 먹이고 입히며 무럭무럭 자 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더

없는 행복이다.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속소망 도 다 헤아려주시는분은 우리 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모든것이 풍족한 때 받아

안는 사랑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는 지출을 줄이기마런인데 그처 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수 천수만금을 들여 조국의 미 관리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래인 어린이들에게 보다 개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넓 이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대

의 사랑이다. 시련의 광풍이 불어올수록 자식을 더욱 억세게 품어안 는것이 어머니이며 힘겨울수 록 더더욱 강해지는것이 자 식을 위해 바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 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미래를 사랑하는것을 의

미한다. 후대들의 운명과 미래까 지 책임지는 공화국이야말 로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천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과 번영을 위해 나의 여생도 깡그리 바쳐가겠다.

그 고마운 공화국의 발전

조국통일상수상자, 교수, 박사 정규진

공화국의 거리와 마을, 일 터와 가정들마다에서 화초를 가꾸는것이 일상생활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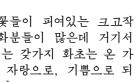
화초를 재배하면서부터 감 정정서가 풍부해지고 사업 에 대한 의욕과 창조적열의 도 높아졌다고 사람들은 말



사는 송영철, 김선비녀성의 가정도 사람들속에서 꽃집 으로 알려져있다.

그의 집 베란다에는 봄부 터 가을까지 언제나 아름다

운 꽃들이 피여있는 크고작 은 화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자라는 갖가지 화초는 온 가 정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되



서 바라보군 한다. 그도 그럴것이 이들가정에 는 토란, 소철, 접란, 게발선 부상화, 룡설란과 같 은 잎판상식물들과 홍초, 장 미, 백합, 나팔꽃, 쑥국화, 제라니움, 참나리, 두봉화, 함박꽃, 코스모스를 비롯한 다종다양한 꽃관상식물들이

길을 가던 사람들도 이 집

의 베란다에 울긋불긋 화려

하게 피여난 꽃들에서 눈길

을 떼지 못하고 한참동안 서

많이 자라고있다. 꽃을 사랑한다는것은 아름 다움을 지향한다는것을 말 하며 화초를 재배한다는것 은 곧 자기자신을 문화정서 적으로 수양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김선비녀성은 말 한다.

화초를 재배하는것은 사람 들의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

다. 실례로 접란은 공기중에 있는 많은 량의 유해가스를 흡수정화하는것으로 《록색정화기》로 불리우며 선인장류는 유해가스를 빨아 들이고 전자기파를 흡수할뿐 아니라 밤에도 산소를 내보 내는것으로 하여 항상 공기 를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

이밖에 장미, 알로에, 국 화, 수선화, 만년청을 비롯 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화초들도 많다.

이들가정에서는 화초구경 을 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 게 애써 키운 화분도 스스럼 없이 안겨주고 자기들이 터 득한 화초재배방법도 성의껏 가르쳐주고있다.

그것은 가정을 벗어나 사회 의 화목과 단합에도 좋은 영 향을 주고있다.

록음방초 우거지고 만발하 는 가지가지 꽃들과 더불어 어디서나 풍만한 정서와 아 름다운 생활이 활짝 꽃퍼나

본사기자 홍범식

쌔생살개

공화국의 4.15문학창작단

위 대 한

에서 총서 《불멸의 향도》

-세계의-하늘가에-공화국기를-날린-체육인들-관록있는 력기강자 김 은

김은국은 4.25체육단 력기 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경기 들에서 눈부신 성과를 안아 온 명성높은 체육인이다.

그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 회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서 순간채기와 빠른 추기, 재치 있는 현결동작 등을 유기적 으로 결합하여 끌어올리기 에서 153kg, 추켜올리기에

- 총서《불멸의 향도》중에서 -

장편소설《부강조선》

서 174kg을 들어올려 종합 327kg을 성공시켜 세계신기 올림픽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2013년 까자흐스딴에서 진 행된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 서 김은국선수는 남자 62kg 급경기에 출전하여 끌어올리 기와 추켜올리기에서 1위를 하고 종합 1등으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그는 2014년 제17차 아시 아경기대회 남자력기경기에 서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하 고 런속 새 기록을 세웠다. 남자력기 62kg급끌어올리 기 첫번째들기에서 147kg을 가볍게 들어올린 그는 새로

운 기록갱신에 나섰다.

그는 두번째, 세번째들기 에서 152kg, 154kg을 단번 에 들어올려 아시아경기대회 기록과 아시아기록, 세계기록 을 갱신하였다.

추켜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 170kg을 성공시킨 그는 174kg, 178kg을 련속 들어올려 2012년 런던올림픽경기대회에서 세운 기록인 종합 327kg을 328kg, 332kg으로 두차례나 갱신하고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 진 행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도 우승을 쟁취하여 명성을 떨쳤다.

김은국은 로력영웅, 인민체 육인이다.

본사기자

림흥동일대에서

고구려시기의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력사 학부의 학술연구집단은 평양 시 대성구역 림흥동일대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유물들 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 행하여 1~5세기초까지의 고 구려의 력사를 해명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연구결과 를 발표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에서는 주체80(1991)년부터 주체109(2020)년까지의 기간 에 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 일대에서 고구려시기의 유적 유물들을 발굴고증하는 과정 에 1세기초부터 고구려가 평 역적거점으로 삼았으며 평양 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발전 된 문화를 창조하였다는 사 실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학술연구집단은 이 일대에 서 고구려시기 건물터의 일 부, 2개의 고구려우물(1호, 2호), 벽돌로 축조한 1개의 지하구조물과 많은 기와쪼각, 질그릇쪼각 등을 발굴하였다.

고구려우물유적들은 대성 구역 림흥동소재지에서 남쪽 진 곳에 위치하고있는데 발 굴당시 내부시설만 기본적으 로 남아있고 우물벽의 웃부 분의 일부가 파괴되여있었다.

림흥동일대에서는 주추자리돌들이 있는 건물터 와 땅을 파고 그안에 강돌 을 채워넣은 2개의 배수시설 과 동서길이 200cm, 남북너 비 150~160cm, 높이 90cm정 도의 지하벽돌구조물도 발굴 되였는데 그 주변에서 여러 종류의 많은 유물들이 수집

연구집단은 발굴을 통하여 당시 고구려문화의 발전면모 를 새롭게 해명하였다.

1호우물에서 처음으로 발 굴된 돌바둑판쪼각이 고구 러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 서 제일 이른시기에 속하

는 19줄짜리 바둑판이라는 것과 한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 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까 지 이어져왔다는것을 해명하 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는 림흥동일대에 서 조사, 발굴된 고구려시기 의 유적유물들이 학술적의의 가 매우 크다는데 대하여 인 정하였으며 비상설물질유산 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유적 의 가치를 평가하고 림흥동 고구려우물1호와 2호를 보존 유적으로 등록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새로운 치시며 금속공업의 주체화실 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 를 바치신데 대하여 생동한 예 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금속공업이 나아갈 길은 천명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 을 하나하나 제시해주신다.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된 무산광산련합 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집단 적혁신을 일으켜 광산의 현

대화와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 을 완성하였으며 그이의 유훈 을 받들어 황해제철련합기업 소에서도 마침내 산소열법용 광로에서 주체철을 뽑아내는 데 성공하게 된다.

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철련합기업소의 성과를 금속 공업부문전반에 확대해나가 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 혀 주 신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속

소설은 금속공업부문 로동 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 쟁모습을 통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사회주의건설 의 새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씩이다.

꼬리는 몸통보다 길고 옆

으로 납작하다.

합수도롱룡살이터에 서 살아가는 합수도 롱룡은 도롱룡과의 한 종이다.

몸길이는 6~7cm, 꼬리길이는 4~5cm 이며 눈은 크고 두 드러졌다.

몸등쪽은 푸른빛 이 도는 밤색이며 가운데에 누런 밤색 의 줄이 있다. 몸량쪽에는 눈뒤

에서부터 꼬리에 이 르기까지 검은 밤색 줄이 세로나있고 배쪽은 연 한 흰색을 띤다.

몸뚱이옆에는 가로난 줄홈 이 13개 있다.

네다리는 비교적 길고 앞 발과 뒤발의 발가락은 네개

超饱加售量

겨울에는 물속에서 겨울잠 을 자고 6월 하순~7월 상순 경에 물에 가는밸모양의 알 주머니를 낳는다.

알주머니의 길이는 10cm정도 이며 그안에 보통 30~70여개 의 알이 들어있다. 알은 7월말경에 까난다.

엄지는 물기슭의 눅눅하고 그늘진 풀밭이나 나무가 썩 은 곳, 돌밑가운데서 살며 주로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우 향 미, 그림 김 윤 일

나도 아버지도 어느덧 뜨 거움에 젖어 어머니의 속삭 임을 말없이 듣고있었다.

이윽고 아버지가 부르는 노 래소리가 울렸다. 이런 좌석 이면 늘 들어오던 아버지의 지정곡 《오직 한마음》의 선 률이 그날처럼 내 가슴을 파 고들어 감동을 불러일으킨적 은 없었다.

어느덧 어머니의 목소리까 지 합쳐 부르는 노래를 들 으며 나는 결혼식날에 불렀 다던 그 노래가 오늘도 아 버지, 어머니를 조국을 위한 한길로 변함없이 떠밀어주고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할수

있었다. … 《하긴 명희 남편이…》 하는 아버지의 말에 나는 추 억의 갈피에서 깨여났다.

《얼마나 정직하고 대바른 사람이였나. 그런데 변했거 던. 조국보다 먼저 자기자신 과 가정을 생각했거던. 그러 고보면 명희에게도 큰 잘못 이 있소.》

《명희가 저 길로 나가면 안되겠는데 하고 생각은 하 면서도 잘 도와주지 못한 제 가 무슨 동무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책으 로 떨렸다.

사실 어머니는 전화를 끊 고 그길로 명희의 집을 찾 아갔었다.

《어쩌면 그럴수 있니? 좋 을 땐 안해이고 나쁠 땐 남 이란 소리야? 넌 우리 녀성 들을 모욕하고있어.》

성이 나서 웨치는 어머니의 모습에 명희는 그저 눈물로 대답할뿐이였다. 눈물로 얼굴을 적시던

희는 한참만에야 어머니의

두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난들 왜 남편과 갈라지 고싶겠니. 너무 속이 타고 자신이 저주스럽고 미워서

그랬던거야.》 《그럼 됐다. 남편의 과오 는 곧 안해의 잘못이라고 생 각해라. 난 네가 진심으로 자신을 깨끗이 반성하고 남 편과 함께 새 출발을 했으면 한다. 아니, 꼭 새로운 모습

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래.》 《고마워, 난 이때껏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왔지 만 그건 오산이였어. 진짜 행 복은 바로 너에게 있었어, 너

에게.》 명희는 고개를 뗠구었다. 문득 처녀시절에 명희에게 했다던 외할머니의 말이 떠 올랐다.

《나도 우리 령감도 한다 하는 천리마기수였지. 우리 가 재산이요, 직업이요, 인 물이요 하는걸 보았는줄 아 나? 그저 나라일에 극성인 사람이면 가정도 행복하게 해줄수 있다고 믿었지.

난 지금도 이 기준이 변 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가 후회없이 걸어온 인생 길이 그대로 너희들, 새 세대 들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

자신이 좋은 사람을 선택 하는것은 행복이다. 허나 좋 은 사람에 의하여 자신이 선 택되는것은 더 큰 행복이다. 오늘날 아버지는 학위학직 소유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한개 학과를 책임진 강

좌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어머니는 요즈음에도 생기 어린 모습으로 바쁘게 뛰여다 니는데 항상 미소가 남실거 려 온 집안이 매일매일 명절

기분이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 습을 재미있게 바라보군 하 는데 눈에서는 마르지도 지 지도 않을 영원한 그런 사랑

의 빛이 타오르군 한다. 아무런 사심도 없이 오로 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 하려는 고결한 마음에 끌려

인생의 길동무로 손을 잡은 지도 25년, 아버지와 어머니 는 아무런 주저와 동요도 없 이 자기의 길을 곧바로 걸어 왔다. 지금은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에 발맞추어 자기들의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가정의 행복 은 날이 갈수록 커만 가고 있다. …

《아무래두 명희한테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려울 때 힘 이 되여주는것이 진짜 동무 고있었다.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 을 걷는 아버지의 모습도 어 머니의 외유내강한 모습에 서 후광을 받아 그처럼 굳 세고 숭고하게 안겨오는것이 아닐가. 부모님들의 결곡하고 강직

해빛이 내려쪼이는 무더운

이때에는 혈압이 오르고

여름날 일사병이 올수 있다.

맥박이 빨라지면서 의식장

애와 함께 정신쇠약증상,

한 모습은 내 가슴속에 영원 한 군상처럼 안겨왔다. 이야기에 심취되여 어느 새 퍼더버리고앉은 나는 그

만 《아-취》 하고 재채기



가 아니겠어요?》 《거 그럴것없이 나두 함 께 가기요. 명희 세대주도 만나볼겸…》

《언제 내려갈가요?》 아버지는 이렇게 물어보는 어머니를 사랑과 신뢰의 정 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짓

를 하였다. 얼결에 입을 싸 쥐고 방안의 동정을 살피던 나는 엄하게 날아드는 아버 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 들었니? 여기 들어오

너라.**》** 나는 방안에 조심히 섰다.

어머니는 그윽한 미소가 담

THE STATE OF THE S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며 온

몸경련, 전간형발작이 일수 체온이 40~42℃까지 올

라가고 부정맥이 오는 경우 뿍 실린 눈길로 나를 지켜보

> 며 담담히 말하였다. 《난 너에게 강요하고싶지 않다.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네가 결심하고 선택하여라.》 나는 당당한 눈길로 어머 니를 쳐다보며 큰소리로 말

《어머니, 나도 알았어 요.》

했다.

나는 결심을 내렸다. 할머니가 선택한 사람은 천리마기수였고 어머니가 선 택한 사람은 할머니의 천리 마정신을 기준으로 하여 택 한 80년대속도창조의 기수 였다.

나도 나의 할머니, 어머니 가 사랑했던 그런 사나이들 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하고 싶다.

그렇다. 나는 그 연구시 동무를 사랑할것이다. 일신 의 향락보다 조국의 번영에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 기 위해 남모르는 열정과 땀 을 바쳐가는,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로 살려는 그 미더운 청년을 나 는 영원히 사랑할것이다.

나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 고 위대한 전세대들의 정신 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처럼 생각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심장은 열렬하게 그를 가리키고있다. (끝)

7=1/

일사병을 막는데서 중요 한것은 몸단련을 잘하는것

해빛이 내려쪼이는 곳에 서 일을 하기 전에 걷기운 동, 가슴운동, 목운동, 다리 운동, 숨쉬기운동과 같은 간 단한 운동을 하는것이 좋다. 야외에서 일할 때에는 해빛 을 반사시킬수 있는 흰옷이 나 흰 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몸을 움직여 축적된 열을 땀과 함께 몸밖으로 내보내 는것이 좋다. 일사병에 걸린 환자가 생 기면 빨리 서늘한 곳에 눕

하며 안경을 끼는것이 좋다.

혀야 한다. 또한 찬물에 적신 수건으 로 온몸을 닦아주면서 몸안 에 축적되여있는 열을 빨리 뽑아야 한다.

환자의 머리가 아래로 향 하게 눕혀 뇌수에로의 피흐 름량이 많아지게 하며 안마 를 해주는것도 좋다.

본사기자

흥미있는 무리

- 《고뿔》

고뿔은 원래 코와 불이 합 쳐져 이루어진 말로서 감기 에 걸리면 코에서 불이 나 는것처럼 더운 김이 나온다 고 하여 감기를 의미하게 되

-- 《(뒤)바라지》

바라지란 사찰에서 극락 왕생(이 세상을 떠나 극락 세계에 가 다시 태여남)을 비는 의식인 재를 할 때 불도를 가르치는 법주스님 을 도와 목탁을 치고 경문 을 읽는 등 여러가지 일들

한다.

바라지스님이 이처럼 자질 구레하고 수고스러운 일을 해준다는데서부터 《뒤바라 지》, 《옥바라지》 등의 말 이 생겨났다.

- 《눈시울》

시울은 원래 고기배가장자 리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였으 나 그후 길게 타원형으로 생 긴 배의 가장자리가 마치 눈 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 눈시 울이라고 하였다.

본사기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강 을 건느려고 기슭까지 왔다. 아버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어디로 건너갈가 하고 망설 이였다.

이때 어린 아들이 소리쳤다. 《아버지, 저쪽으로 건너 가자요. 저기가 제일 얕아

아버지는 놀라워하며 아들 에게 물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 냐?》

《저것 봐요. 물이 얼마나 얕은지 오리한테도 발목까지 밖에 오지 않아요.》

원

집 위

주소:평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